

IDT만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

‘아날로그 + 디지털 + 시스템 전문성 + 맞춤형 역량’ 결합

글/이공희 기자(leepkh@semiconnet.co.kr)

IDT가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업으로서 새롭게 태어났다. 프로세서 및 메모리 같은 디지털 시스템이 상호 간에는 물론 실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반도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IDT의 테드 트릭스버리 사장겸 CEO는 “어느 한쪽에만 주력하는 기업은 기회의 일부에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하고 “IDT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결합함으로써 고객의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고 사용자 환경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레벨의 혁신을 구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IDT는 실리콘 타이밍, 시리얼 스위칭 및 메모리 인터페이스 솔루션 부문에서 업계 1위로서 확고히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이러한 디바이스는 전자 시스템에서 칩 간에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흐름을 동기화하고 서로 연결하며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IDT는 통신, 컴퓨팅 및 소비재 시장의 유력 장비 제조업체들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급업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테드 트릭스버리 사장은 “이러한 핵심 제품을 바탕으로 기술을 선도하고 적극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IDT의 숙련된 전문 영업 팀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기존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업 기회를 성사시키고, 경쟁사 보다 한발 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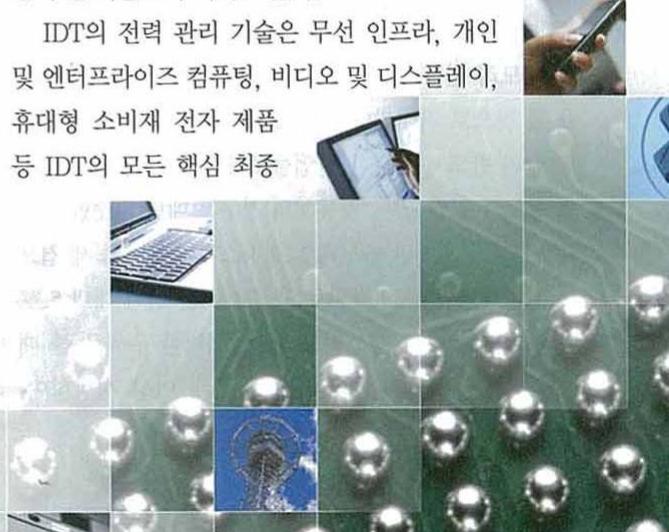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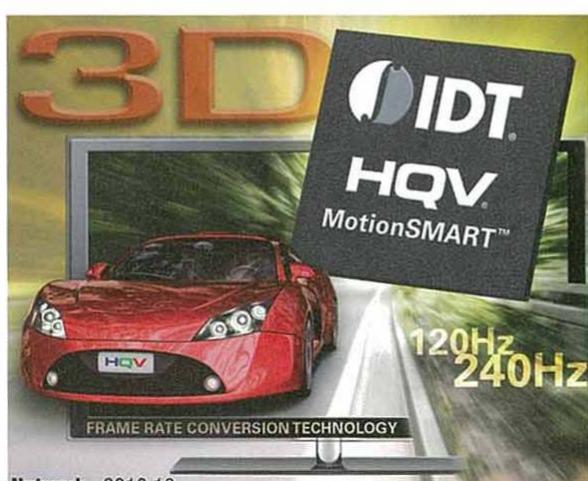
또한 그는 “이처럼 ‘반드시 승리한다’는 IDT의 사고 방식은 통신, 컴퓨팅 및 소비재 시장의 주요 고객들을 상대로 업계 1위의 혁신적인 혼성 신호 솔루션 공급업체로서 IDT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DT는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우리의 혼성 신호 내용을 확장함으로써 가용 시장을 더욱 넓혀 가고 있다. 또한, 강력한 디지털 자산을 바탕으로 고성능 아날로그 및 시스템 전문 기술을 추가해왔다. 아울러 IDT가 타이밍 부문의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 신속한 ‘맞춤형 제작 모델’을 다른 제품군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성능 극대화, BOM 비용 및 출시 시간 최소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최적화된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에 보다 뛰어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전력 관리에 대한 IDT의 접근 방식은 최종 애플리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어 있다. IDT는 아날로그 자체를 최종 시장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시스템 레벨 솔루션을 위한 구현 기술로서 여기고 있다.

IDT의 전력 관리 기술은 무선 인프라, 개인 및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비디오 및 디스플레이, 휴대형 소비재 전자 제품 등 IDT의 모든 핵심 최종



시장을 아우르고 있다. 또한 IDT의 전력 관리 및 시스템 전문가는 고객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향상된 차세대 디바이스 개발을 목표로 전력 절감 및 배터리 수명 연장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IDT는 30년간 축적된 디지털 기술 부문의 자산과 리더십, 그리고 회사 내 아날로그 인재 및 역량이 결합되어 뚜렷한 이점을 갖추게 되었다. IDT는 업계 최고의 아날로그 및 시스템 부문 인재를 꾸준히 영입해왔으며 이들의 새로운 기술은 IDT 디지털 시스템이 실제 세상과 상호 작용하고 고객의 시스템에서 IDT의 제품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ted 트릭스버리 사장은 “조직적인 개발 활동 외에도 IDT는 인수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신제품 성장 속도에 박차를 가해왔다. 실리콘 옵티스(Silicon Optix)의 인수를 통해 핵심 비디오 처리 기술을 확보했고, 툰드라(Tundra)는 IDT의 스위칭 부문 리더십을 강화시켰다. 리디스 테크놀로지(Leadis Technologies) 인수를 통해 터치 기술 또한 확보할 수 있었으며, 모비우스 마이크로시스템즈(Mobius Microsystems)는 타이밍 부문의 리더십을 확장시켰고, IKOR은 전력 관리 개발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의 증가 외에도 IDT는 운영 개선 노력을 통해 총 마진을 높일 수 있었다. 2010회계연도에 말레이시아 피낭(Penang)에 테스트 설비를 통합했으며, TSMC와 웨이퍼 공급 계약을 맺음으로써 팝리스(fables) 제조 모



IDT의 테드 트릭스버리 사장겸 CEO

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통신 부문에서는 예상했던 것과 같이 3G, HSDPA

및 4G/LTE 기지국이 나오면서 IDT의 타이밍 및 스위

칭 비즈니스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컴퓨팅 사업에 있어 기업이 서버 및 PC 업그레이드가 계속됨에 따라 타이밍, 메모리 인터페이스, 스위칭, 오디오, 신호 무결성 및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 제품군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IDT는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최근 SAM 규모를 2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

